

대학의 명강의 교수 5인과 좋은 강의를 논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학은 저마다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수-학습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SBS·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대학의 100대 좋은 강의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좋은 강의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고, 100대 좋은 강의 중 시범적으로 5개 강의를 발굴하여, SBS 특집다큐멘터리 ‘대학 100대 명강의’로 제작하

여 방송하였다. 5개 강의는 서울대학교 김희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명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찬주 교수, 제주대학교 조정원 교수 외, 홍익대학교 김철중 교수의 강의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에도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좋은 강의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연구 II」가 수행되고 있으며, 8~10개 강의를 선정할 계획에 있다.

2012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SBS·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이 되는 ‘좋은 강의’를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의 100대 좋은 강의 발굴

프로젝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차 년도 프로젝트를 마치고 2차 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2011년 좋은 강의로 선정된 5분의 교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수경 고등교육연구원장, SBS 이창재 차장,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운 박사가 간담회를 갖고 프로젝트의 의의, 효과, 제한점, 교육관, 교육제도 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Q : 수상 이후 강의 등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주변분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요? 프로젝트의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점입니까?

김철중 : 이제 강의도 밖에서 평가하는구나 라는 외부의 반응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같은 과라던가 전공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전공도 다르고 부문도 다른데 어떤 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교수들이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희준 :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어서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상을 받고 나니까 후임자들이 제 자리로 들어오기를 꺼리더라고요. 제가 맡은 과목을 어떻게 유지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추천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아마도 숨어 있는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낼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학교에 연락을 하거나 추천을 받은 강의일 것 같습니다.

김찬주 : 첫 번째 반응은 아무도 안볼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방송 전에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제 스스로 강의를 잘한다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명학 : SBS에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은 흥미와 재미, 시청률로 결정되니까, 저희가 강의를 해서 상을 받은 것은 학생들에 의해 받게 된 것이지만 학생들을 즐겁게 해서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상을 받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이니, 방송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뭐라고 했길래 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시청자들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김철중 : 다른 교수님들은 '좋은 강의'를 통해 수업에 참고할 만한 점이 뭐가 있을까? 티칭방법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 내가 배울 게 있나? 하는 것 일겁니다. 막상 방송을 보면 연출이 과다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아닌데 저게 포인트가 맞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도 고민하게 됩니다.

조정원 :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사람들에게 남길 것이냐 라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보다는 강의자 저 자신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강의 포맷

이나 내용보다는 방송에서의 조명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분은 일인강의라는 점에서 좋은 강의자로 선정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명이 넘는 교수진이 함께 한 팀티칭 강의로 좋은 강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100대 명강의를 선정한 것인지, 명교수를 선정한 것인지 제 스스로에 대한 착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김철중: 좋은 강의를 선정하시는 팀과 방송을 기획하시는 팀의 목표가 같아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방송에서도 본래 목표하신대로 대학교육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최정운: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200개 강좌정도를 모았구요, 나름대로 학문분야와 전공/교양, 학생규모로 그루핑을 해서 경쟁을 통해 선발을 한 것입니다. 처음 포커스는 강의였지만, 강의자가 그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업을 이끌어가는 기술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두려고 한 부분은 수업이었어요. 강의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강의자가 기준이 되어 이끌어가는 수업이라는 전체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법 기술,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생들의 평가(intensive)로 간접적으로 수업 콘텐츠를 보았고, 학생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1차 선정이라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좋은 강의의 비법은 무엇인지요? 강의의 초점은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김희준: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오래 살면서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division of continuing education에서 강의할 기회가 생겨 처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젊은 분들까지 공부하는데 일반적인 우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되겠다라고요. 그 당시 우주의 생성에 대해 재미있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던 터라 일반적인 강의를 하지 않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해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학생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중요성을 터득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15년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구요. 학생들은 보통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적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자신의 지적 욕구와 지적호기심을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초점입니다.

김철중: 저는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업에 종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교수가 처음 되었을 당시에는 지식 전달에만 초점을 두다가, 미국의 제 전공분야의 실무중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강자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논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 논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테면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접하잖아요. 삼성과 애플사의 싸움에 대해 그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나아가 이것이 기업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질문을 수업시간에 던지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현안을 던져 놓고 그것을 대하기 전에,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공부하게 하고 팀별로 충분히 토론한 후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호모사피엔스’ 강의에서 ‘호모나란스’ 강의로 바뀌어야 소통도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말을 함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명학 : 예의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수는 학생에게 학생은 교수에게 지키는 것이라고 수업시간에 얘기합니다. 교수는 강의시간에 들어와서 성심성의껏 강의하고 학생은 그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라고 말하죠. 제가 강의평가를 받아보면 참 의아스러운 것 중 하나가 사람 만드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인상깊었다고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은 지식전달도 중요하지만 사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한문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강의시간에 주로 ‘부모한테 잘해라’, ‘친구들에게 신의를 지켜라’, ‘약속 잘 지켜라’,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줘라’, ‘내가 좀 희생해라’등등 평범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물

어보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저는 실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말을 많이 해줍니다.

김철중 : 대학강의에서 학생들은 티칭만을 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을 원하는 것이죠.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가치와 같은 것들을 수업시간에 이야기 하다보면 학생들은 그런 가르침에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 그래서 보편적이고 본질적 신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조정원 : 학습자가 스스로 리딩을 하면서 교수자가, 교수가 리딩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주대학에서는 제주문화콘텐츠라는 인재양성 사업을 7~8년 동안 진행해오고 있어요. 대학에서 전문가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스스로 배워온 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자는 의도로 사업이 기획되었죠. 기존 프로젝트는 교수가 ‘무엇을 만들어 와’ 하면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획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학생들이 그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꿈,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게끔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층이 조직되고, 매주 매일 학생들과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지 말고 ‘이 길과 이 길 중에 어디로 할까요?’를 물으라고 합니다. 에듀워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디자인 학생들은 제주문화라는 문화원형을 발굴하는 콘텐츠를 만들

고, 사학과 학생들은 원형발굴에 노력하는 것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그룹이 되면 무임승차가 꼭 나와요. 이런 과정에서 갈등하고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PBL이나 액션러닝 등의 교수법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지금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김찬주 :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든지 이 과목이 폐강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수업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이 물리학이라서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고, 여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아서요. 처음 강의할 때는 한 시간(90분) 강의하는 데 48시간 수업준비를 했어요. 그 학기에는 다른 것은 거의 하지 못했고 그 강의만 준비한 거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과목 준비와 비슷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보면서 대학 잘가기 위해 열심히 외우기만 했던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주변에 의해서 밀어졌기 때문에 재미나 흥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오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탈진한 상태로 대학에 와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되죠. 이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인간 본연의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알아

가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생기고 과학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 싶어하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서 지적 호기심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중요한 것이다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새삼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Q : 최근 강의공개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명학 : 저희 대학은 대학강의를 외부에 공개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조심스러워서 말을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공개하는가,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흥미에 따라 보는 경우와 국민 교양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우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김철중 : 제 생각은 초점을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방안, 둘째 일반인들에게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점에 호기심을 전달해주고, 전공에 대해 소개하여 분야별로 대입 전 전공선택의 안내자 역할이 되는 방안, 셋째 일반 대중들한테 필요한 지식들을 알기 쉽게 녹여서 공유하는 방안으로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숫자에 밝고,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

를 파악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세 가지로 나눠서 파악을 해야지 한번에 다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아요.

이명학 : 전체 한 학기 강의를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전체 강의는 16주인데 50시간에 맞춰진 강의를 하는 것이죠. 전에 teaching reward를 받고 학교에서 1시간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강의를 해서 오픈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Q : 프로젝트의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준 : 서울대학교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일부를 강의전담 교수로 뽑으면, 승진 기준인 논문을 안쓰고 강의만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좀 안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reward를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6개월 후에 정년퇴직하면 다른 대학의 석좌교수로 가기로 했는데, 그곳에서는 연구보다는 순전히 학부교육에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최근 은퇴한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철중 : 미국에서는 사회과학의 경우 현실과 굉장히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구 없이 강의

만으로 tenure track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학 : 성균관대학교는 teaching award라는 명패를 연구실에 달아줘요. 학생들에게 내가 들은 강의 중에 좋은 강의를 에세이로 응모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 교수들에게 나누어주거든요. A4 용지 3장을 쓰니까 꽤 많지만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강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요.

김철중 : 사실 학교에서는 강의에 대한 포상이 별로 없어요. 과목이 폐강이 되지 않기 위한 사명감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죠. 정책당국하고 강의 평가와 연계를 시켜서 reward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학교육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찬주 :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통의 교수가 강의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현재 시스템에는 없어요. 대학에서 교수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강의는 중요하지 않고 논문을 몇 편 쓰느냐만 중요한 것이죠. 강의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교수가 강의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죠. 특정 몇몇 교수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조정원 : 교육을 너무 단기간 내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이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의평가의 경우도 그 평가방법이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됩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강의의 경우 정말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학점따기 쉬워서일 수도 있거든요. 즉, 정량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명학 : 현재강의평가 기준 10개 항목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당신의 자녀에게 이 강의를 추천할 수 있냐?’ 를 묻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김철중 : 제가 볼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SBS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좀 상징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